"세상 바꾸는 힘은 소시민 연대 … 억울한 옥살이 누명 벗기는 일 앞장"

개봉 앞둔 영화 '재심' 실제 모델 … 완도 출신 '국민 변호사' 박준영

'삼례 3인조' '약촌 살인사건' 재심서 무죄판결 이끌어
스토리펀딩으로 5억 모아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맡기도
지난해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

다들 '미친놈'이라고 수군거렸다. 완도 노화종합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시골뜨기가 고시촌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한답시고 앉아있으니 터무니없는 소리도 아니었다. 현재 그는 재심사건 전문 변호사가 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 피고들의 무죄판결을 속속 이끌어내고 있다.

완도 노화도 출신 박준영(42) 변호사는 지난해 일약 '국민 변호사'가 됐다. 그가 받아낸 형사사건 재심만 3건이다. 지난해 전북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을 비롯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고들의 누명을 벗게 해주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돼 표창장을 받았다.

국민적 주목을 받은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침입해 유모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죽인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던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자백했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유죄가 확정됐었다. 이들은 1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박 변호사는 "삼례 3인조 사건은 우리 사법제도가 아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특히 경찰, 법원 등이 사회적 약자를 '동일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선입견을 갖고 판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찰, 검찰, 판사 등이 피고인이 외부압력을 받아 자백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나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는 "재심사건 전담 변호사가 된 것은 남들이 피하는 사건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서였다"고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시골 출신, 고졸 변호사로 특별한 인맥이나 재력이 없었던 탓이다. 그는 "튀려고(?) 시작한 일에 발목을 잡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게 천직이 됐다"며 웃었다. 하지만,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건에 매달리다 보니 파산 위기에 몰렸다. 다행히 지난 8월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진행된 스토리펀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에는 무려 5억6236만여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빚을 조금 갚고 또 다른 재심 사건을 위해서 돈을 남겨 놓았다고 한다. 그를 모델로 한 영화 '재심'도 제작돼 오는 16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재심'은 목격자이지만 되레 살인범으로 지목된 한 남자가 변호사와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려냈다. 박 변호사가 무죄판결을 받아낸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바탕이 됐다. 이처럼 유명세를 타면서 일반 사건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박 변호사는 일반 사건 수임은 피한다.

"일반 사건을 맡으면 공익사건을 변론하는 동력을 잃게 될 거에요. 돈 때문에 일한다는 선입견을 재판부에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눈팔지 않고 공익사건에 매달리면 재판부에서도 사건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다행히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공간을 지원해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선한 소시민들의 연대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힘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믿는다. 진범을 검거한 경찰관,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뜻있는 사람들이 주역이라고 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촛불집회처럼 연대에서 나옵니다. 연대의 힘이고 침묵하지 않는 힘이에요. 재심은 결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 결과가 아닙니다. 귀찮고 힘들더라도 기꺼이 연대에 나서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완도 노화에서 태어나 광주 북성중학교에 다닌 그는 상위 1%에 드는 학생이었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심각한 사춘기를 겪었다. 고교 1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서울, 인천 등지 공장을 전전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자존감이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중심인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았다. 개정판 법률서적을 살 돈이 없어 새책의 내용을 복사해 공부했다. 그는 "노력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힘을 믿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세상도 변할 거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공부를 놓지 않았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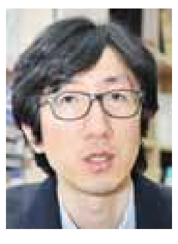
박 변호사는 '무기수 김신혜' 사건도 맡아 재심을 이끌어 냈다. 김씨는 완도 출신으로 부친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누명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재심사건과 공익사건에 주력하기 위해 가욋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공저 '지연된 정의'(후마니타스) 등을 출간했고 TV출연, 강연요청에도 적극 응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형사사법 피해자들을 도울 기회가 언제까지 허락될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뜻을 모아 도와주신 분들의 성원을 잊지 않고 끝까지 본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BK21플러스 사업단' 신형철 교수 초청 강연

6일 인문대학 회의실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어기반사업단'(단장 신해진·국어국문학과 교수)이 6일 오후 2시 인문대학 학술회의실(인문대 1호관 113호)에서 제18회 전문가 초청강연을 개최한다.

'신정론(神正論)적 텍스트의 지역적 무의식 : 곡성(나홍진, 2016)을 밀양(이창동, 2007)과 함께 생각하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초청강연의 강사는 문학평론가인 신형철<사진>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다.

신형철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 편의 한국영화 '곡성'과 '밀양'을 통해 인간에게 진짜 종교적인 사건이란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예정이다. 특히, 영화의 배경이 되는 두 지역에 관한 지역적 무의식의 실체를 새롭게 제시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 교수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05년 '문학동네' 봄호로 등단한 뒤 평론집 '몰락의 에티카'와 비평 에세이 '느낌의 공동체' '정확한 사랑의 실험'을 출간한 바 있다. 현재 광주일보 칼럼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문의 062-530-0230.

/박성천기자 skypark@

한국투자증권 호남본부, 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 전달

한국투자증권 호남지역본부(본부장 나종운)는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광주지역 저소득가정 대학생 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나종운 본부장은 "2014년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지역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송원초, 교실수업개선 日 소학교와 교류

광주 송원초등학교(교장 신명순)는 최근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7일 일정으로 일본 쓰쿠바대학부속소학교와 아키타대학부속소학교를 방문해 수업교류회를 가졌다.<사진>

쓰쿠바대학부속소학교는 1873년 설립한 일본 최초의 소학교다. 일본 교사 재교육과 학년 교육과정을 실험하는 학교로서 일본 최고의 수업기술 연구 학교다.

쓰쿠바대학부속소학교는 지난해 10월 송원초를 방문한 바 있으며, 두 학교 교사들이 각각 시범수업과 수업에 대한 평가 등을 가졌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동아병원, 광주시나브로문예조합 후원금

동아병원(대표원장 이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은 2일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광주시나브로문예협동조합 공동사업장을 방문해 지원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동아병원 제공〉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동계체육대회 결단식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일 광주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제14회 전국 장애인동계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을 열었다. 대회에 참가할 5개 종목 39명의 선수단이 참석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의무경찰 전역식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동진)는 지난 1일 제363기 해양의무경찰 7명의 전역식을 진행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인사

◆동신대

◇전보

▲산학협력단장 고영혁 ▲교무처장 겸 IPP사업단장 김순철 ▲공과대학장 최승호 ▲에너지융합대학장 연석주 ▲보건복지대학장 전진 ▲문화관광대학장 정호영 ▲한의학연구소장 나창수 ▲기획협력처 교육평가센터장 조지현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상담센터장 겸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박희현 ▲에너지융합대학 교학과장 조재철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경주김씨 광주·전남종친회 재광 회원 모임=6일(월) 오전 11시 5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 '맛집한겨레' 문의 사무국장 김재찬 010-6455-6296.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회(회장 이강렬) 월례회의=14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6일(월)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화랑궁회관 문의 062-224-1800.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인터넷·도박·니코틴·약물 등 무료상담 및 정보제공,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운영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지역주민 및 직장인 예방교육 실시 062-654-3802.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광산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중독문제(알코올·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당사자나 가족 대상 무료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비공개 무료상담 제공(www.gsgacc.or.kr) 문의 062-714-1233.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모집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 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중장년세대를 위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무료 수강생=제2인생설계 아카데미(매주 목요일), 퇴직자 중심 사회공헌 아카데미(매주 월·수요일), 전문강사 양성(매주 월요일), 나만의 브랜드 홍보 마케팅(매주 화요일), 비영리단체 설립운영(매주 금요일) 등, 교육문의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생이모작지원팀 062-600-5241~2.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광주유교대학 학생모집=1학년 신입생 50명 월·수 오후 3시30분~5시30분 교육, 2학년 편입생 20명 화·목 오후 3시 30분~5시30분 교육, 성별·학력·나이 제한 없이 유교입문학과 유교경전(사서삼경 등) 교육으로 원서접수 2월28일까지, 문의 광주유교대학 사무처 062-672-7008.

부음

▲나병호씨 별세 계원(광명주택)·웅산(삼성전자)·인주·인옥씨 부친상 김희경·박가영씨 시부상 김용일(호남대학교)·김승수씨 빙부상=발인 3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임정애씨 별세 김영일·호중·승희·윤희씨 모친상 김혜정·김선아씨 시모상 김종영·윤성호씨 빙모상=4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주종욱씨 별세 현도·혜림씨 부친상=발인 4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이영호 님(남/80세)
子/子婦 : 이문진/정경단, 철한/정미경
女/壻 : 이정희/김성균, 정자/안병준, 정애/신용진, 선희/김정철
孫 : 이성민, 유성, 김도진, 승태, 조성균, 안충섭, 이주미
• 발 인 : 2월 3일
• 장 지 : 나주 남평선영 • 연락처 : 227-4381

402호 故홍남식 님(/91세)
子 : 홍상영
女/壻 : 홍미자/서기홍, 미옥/문용우, 연옥/양승귀, 춘이/문철호, 인경/김용태, 수영/김찬호
• 발 인 : 2월 3일
• 장 지 : 담양부활의집 • 연락처 : 227-4383

102호 故김신생 님(여/87세)
子/子婦 : 홍광식/문현애, 성만/정인숙 女 : 홍계자 孫 : 송석기, 준기, 요셉
• 발 인 : 2월 3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함께 한10년. 함께 할100년
금 호 장 례 식 장
대표이사 구 제 길
062·227·4000
www.mykumho.com